물가 주춤 한다는데 체감은 언제쯤

광주·전남 지수 상승률 1%대…전달보다 0.1%⬇

태풍 영향 파·배추 70% 급등해 가계부담 여전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동기 대비 상승세가 둔화된 가운데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와 과일 등의 오름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공식품 가격 인상 추세를 감안하면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10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 올랐고, 전달에 비해서는 0.1% 하락했다.

광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6월부터 1%대로 내려 앉았다.

보육료와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 확대로 소비자물가는 하락했지만 채소와 과일류의 상승세는 두드러져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0%나 급등했다. 과일류와 채소류가 각각 19.0%, 17.1%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주요품목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파(70.8%), 배추(〃) 등 김장 채소값이 크게 올랐고, 사과(45.7%), 배(38.4%) 등 과실류도 많이 올랐다.

반면 시금치(-52.7%), 상추(-45.

8%), 호박(-42.9%) 등은 한달 사이에 크게 내렸다.

지난 9월 태풍 영향으로 채소값이 급등했던 것을 감안하면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배추·무 등의 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 김장 채소 수급상황이 좋지 않아 김장물가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소비자의 체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용 LPG(5.9%), 초등학생 학원비(5.3%), 화장비누(7.0%), 된장(4.6%), 콩나물(4.5%) 등도 한 달 사이 일제히 올랐고 전세(7.5%), 월세(3.2%)도 1년 전 보다 상승했다.

전남의 경우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지만 전달보다 0.2% 하락했다.

하지만 신선식품지수는 채소와 과일이 전달보다는 9.3%, 0.8%씩 하락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 보다 채소가 23.0%, 과일이 11.9%나 오르면서 전년동월 대비 11.3%나 급등했다.

품목별로는 파(87.1%), 양상추(62.6%), 생강(56.1%), 상추(49.0%), 피망(48.6%), 배추(47.0%), 배(44.6%), 열무(44.0%), 사과(43.0%) 등 신선식품을 비롯해 과일통조림(28.3%), 여자학생복(27.2%), 남자학생복(26.1%), 고추장(18.7%) 등 공산품 가격도 1년 사이 많이 올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커피의 모든 것 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2 카페·베이커리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커피 머신을 살펴보고 있다. ㈜미래전람이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105개 업체가 참가해 커피, 커피머신, 공정무역커피, 제빵 관련 재료 및 도구 등을 오는 4일까지 선보인다. /연합뉴스

경기 '찬바람' 유통업 종사자 80% "작년보다 안좋다"

국내 소매 유통업계 종사자 10명 가운데 8명은 올해 체감 경기가 지난해보다 안 좋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10명중 7명은 가계비 지출을 줄였고 특히 외식비를 우선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소매유통 전문지 월간 '리테일 매거진'이 유통업계 종사자 18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2.9%는 올해 경기가 지난해보다 '훨씬 안 좋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간 안 좋다'는 답변도 39.9%로 전체의 82.8%가 경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소매경기 전망에 대해선 절반 가까운 49.6%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했고,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란 답변은 전체의 7.3%에 불과했다.

본격적인 경기회복 시점으론 45.2%가 '2014년 이후'를 꼽았고, 33.6%는 '내년 하반기'라고 답했다. '내년 상반기'는 5.9%였다.

한편 이 잡지가 롯데마트와 하나로클럽 등 유통매장을 방문한 이용고객 3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0.7%는 가계비 부담으로 씀씀이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을 줄인 응답자의 27.1%는 외식비를 줄였고, 이어 20.1%가 식료품비를 아꼈다고 답했다. 화장품·의류 구입비를 줄였다는 응답도 18.7%에 달했다.

가공식품, 생활의류, 가전, 가구 등은 모두 10% 미만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현재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에 대해선 51.1%가 '물가 상승'이라고 응답했고, '소득 감소'가 16.4%로 두 번째였다.

/연합뉴스

'마이너스의 손' 연금보험

생보·손보사 16곳중 15곳 수익률 손실

약 373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보험의 주력상품의 수익률이 대부분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은행 연금신탁은 4% 안팎의 수익률을 냈다. 자산운용사의 연금펀드 수익률도 4~5%에 달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자산운용·보험사들은 621개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율 등을 처음 공시했다.

안정적인 채권형 상품의 판매 개시 이후 연평균 수익률이 가장 저조한 곳은 보험업계다.

특히 손해보험사는 각 회사가 가장 많이 판매한 상품을 기준으로 8개 손보사 가운데 7개 손보사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롯데손보의 '3L명품 연금보험'이 -9.53%로 가장 낮았다. LIG손보의 '멀티플러스연금보험(-9.43%)'과 삼성화재의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9.32%)'도 하위권이다.

생명보험사는 조금 낫긴 하지만 은행이나 자산운용사보다 수익률이 매우 저조하다. 8개 생보사의 주력상품 수익률이 마이너스에 머물렀다.

생보업계 '빅3'로 불리는 삼성·교보·한화생명 가운데 삼성생명의 '골드연금보험' 수익률은 -2.86%다.

IBK연금의 'IBK연금보험(-3.65%)', ING생명의 '세테크플랜 연금보험(-3.40%)', 농협생명의 '베스트파워 세테크 연금공제(-2.0%)'도 원금 손실을 기록했다.

생·손보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 상품은 434개에 달한다. 가입자는 손보가 192만명, 생보가 181만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특성상 판매 초기에 수수료를 많이 떼다 보니 팔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품의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수익률이 현저하게 낮다 보니 보험사들은 '장래 예상적립률(계약을 앞으로 유지할 때 기대되는 수익률)'을 따로 공시했다.

연금저축 상품의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등은 분기마다 공시된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연금저축 통합공시'로 조회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전략산업 제품 디자인 공모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1% 아래로

광주테크노파크 20일까지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디자인센터가 광주시 전략산업 제품 디자인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20일까지 웹하드(gria.webhard.co.kr)나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우편 접수한다.

제출 작품을 심사를 거쳐 우수작 22개를 선정, 총 700여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www.gjtp.or.kr, www.gd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치솟기만 하던 가계대출 연체율이 1% 밑으로 내려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말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0.92%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8월 1.01%로 6년 만에 1%를 넘어섰으나 한달 만에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 0.86%로 전월 말보다 0.05%포인트,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1.04%로 0.19%포인트 떨어졌다.

가계대출 잔액은 456조3000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7000억원 감소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은 309조4000억원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9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1.39%로 전월 말보다 0.60%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보다 1.42%포인트 내린 0.94%,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31%포인트 떨어진 1.55%를 기록했다.

기업대출 잔액은 624조9000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8조6000억원 늘었다.

대기업대출은 3조2000억원 늘어난 160조3000억원, 중소기업대출은 5조4000억원 증가한 46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1~9월 중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현황을 보면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대출은 1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1% 늘어났다. 중소법인 대출은 17조7000억원으로 9.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경기둔화에 따른 기업부실을 우려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보고 중소법인 대출 취급을 확대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동산담보대출 조기 정착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연금저축펀드 가입하고 상품권 받고

광주은행 내년 2월까지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저축 펀드 가입을 늘리기 위해 1일부터 오는 2013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차곡차곡 연금펀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은행에서 판매되는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적립금액 기준 월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신규고객은 1만원 문화상품권, 월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신규고객은 2만원 문화상품권, 월 50만원 이상 가입 고객은 3만원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연금저축 펀드는 대표 절세 상품으로 연 400만원을 소득공제로 받을 경우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따라 적게는 26만원부터 최고 154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